댄스 네이션

Dance Nation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5.2 –
5.2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3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두산인문극장은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을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3년은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코로나19는 나이 든 이들에게 더 가혹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에게 치명률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해 돌봄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립은 육체적 분리뿐 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까지 의미한다. 코로나19가 노년이라는 나이에 대해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회의 노령화는 일찌감치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노령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더 길고 천천히 겪어가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아무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대로인 채로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슬픔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법칙에 균열을 내고 있다. 기존의 균형과 조화가 분열과 충돌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가 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이들의 돌봄이 후손들의 번성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나이를 이해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에서 나이는 계속해서 화두다. 어떤 시기는 나이 듦을 기다리고 어떤 시기는 도망치고 싶다. 나이는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험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더해지는 탓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노화’와 ‘세대’로 이어지고, ‘인구’, ‘돌봄’, ‘테크놀로지’로 확장된다. 그 테두리에 ‘갈등’과 ‘사회문제’가 놓일 수밖에 없다. ‘두산인문극장 2023’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 나이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 지혜는 서로 다른 나이의 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것, 한 사람의 일생에 펼쳐진 매년의 나이를 일련의 호흡으로 어루만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두산인문극장
지난 프로그램 보기

공연

5.2–5.20 @Space111

댄스 네이션

작 클레어 배런 Clare Barron
번역 함유선
윤색/연출 이오진
출연 홍윤희 이미라 윤현길 마두영 황미영 백우람 강보람 부진서 장호인

5.30–6.17

20세기 블루스

작 수잔 밀러 Susan Miller
번역 최유솔
윤색/연출 부새롬
출연 이주실 박명신 강명주 성여진 이지현 우미화 류원준

6.27–7.15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작/연출 정진새
희곡개발리서치 백종관 Kayip
출연 김승언 최희진 황은후 전선우 김준우 권은혜 김정화 유다예

전시

4.19–5.20 @두산갤러리

눈은 멀고 구나 장서영 전명은

강연

4.3 (월) @연강홀

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철학자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4.10 (월)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생물학자 (뉴욕대 의대 교수)

4.17 (월)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불균형: 전망과 대응
이철희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4.24 (월)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사회학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6.19 (월)

갓생살기를 위한 삶 디자인 전략
정희원 의사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6.26 (월)

노인과 로봇
신희선 과학학자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원)

7.3 (월)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인류학자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7.10 (월)

적정한 삶: 균형잡힌 삶이 역량이 되는 시대
김경일 심리학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댄스 네이션
Dance Nation

작

클레어 배런
Clare Barron

연극
‹Dance Nation› ‹You Got Older› ‹I'll Never Love Again›
‹Baby Screams Miracle› ‹Dirty Crusty› ‹Shhhh›

수상
2019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 파이널리스트 ‹Dance Nation›
2017 수잔 스미스 블랙번 프라이즈 ‹Dance Nation›

"십대 인물들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는 신선하고 독특한 작품"

— 2019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 선정위원회

"A refreshingly unorthodox play that conveys the joy and abandon of dancing, while addressing the changes to body and mind of its preteen characters as they peer over the precipice toward adulthood."
— The Committee of Pulitzer Prize of Drama 2019

"생생한 날카로움과 통렬함으로 청소년기에 느끼는 강렬한 양가감정을 소환한다"

— 뉴욕 타임스

"conjures the passionate ambivalence of early adolescence with such being-there sharpness and poignancy"
— The New York Times

"어린 시절의 야망, 열정, 불안, 노이로제, 공황, 잠재력이 나이가 든 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계속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

— 시카고 트리뷴

"The idea of the play is to explore how our messy younger selves — with all of our old ambition, passion, insecurity, neuroses, panic attacks and potential — resides in our minds and bodies throughout the rest of our lives. Even in old age."
— Chicago Tribune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 내던져진 십대들의 두려움과 환희를 보여준다"

— 가디언

"bring out the angst and the ecstasy of teenagers thrust into a world of cut-throat competition and the adult cast superbly suggest innocence haunted by experience."
— The Guardian

번역

함유선

연극
‹틴에이지 딕›‹더스트›
‹IS GOD IS›‹마른 대지›
‹베서니-집› 외

희곡을 처음 읽고 나서, 번역하는 중에도, 연습실에서도
여기저기서 수없이 깔깔댔습니다.
웃음과 함께 솟구쳐 오른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열세 살 즈음의 저와 그즈음 알았던 친구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내 속의 날카로운 칼날을 대체 어떻게 갈무리할 줄 모르고
내가 선택한 이름 대신 애매한 이름들로 분류되고 정의되고
어렴풋이 보이는 혼자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보고 싶지 않고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뜨거운 말들을 비명처럼 쏟아내고
친구들을 그냥 너무 사랑해서 엉엉 울고 싶고.
너무나 생생해서 놀라웠습니다.
거기 있는 줄 몰랐는데. 그때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야 찾아낸,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찾았던 익숙하고 모르는 얼굴들을,
강력한 단어와 외침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가와 함께 찾아내고 벼려낸
무엇에도 기반하지 않고 무엇으로도 정의되지 않는 말들의 힘이
'지금'의 우리를 조금이나마 전율케 하길 바랍니다.

윤색 연출

이오진

호랑이기운

작/연출
‹콜타임›‹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연애는 반드시 망한다›

연출
‹밤에 먹는 무화과›‹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작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개인의
책임›‹바람직한 청소년› 외

수상
2022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콜타임›
2009 제7회 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 ‹가족오락관›

연출의 목적

1. 나의 욕망과, 나의 몸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10대 여성을 "구체적으로" 무대에서 구현하는 것
2. 그들의 존재를 예쁘거나 추하거나 더럽거나 훌륭한 것이
   아닌 "비판단적 상태"로 무대에서 구현하는 것

인물 구현의 목표

1. 관객이 작품 속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게 하는 것
2. 각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관계성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드러나는 것
3. 인물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관객이 감각하게 하는 것

‹댄스 네이션›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템포 말고 내 리듬으로 춤추고,
나에게 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리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대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나를 만나러 갑니다

최은주

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영미문학비평을 전공했다. «책들의 그림자», «질병, 실재하는 추상», «나이 듦, 유한성의 발견» 등의 저서가 있고, 현재는 인간과 비인간의 전치(displacement) 현상과 이동권 및 거처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 그 얼굴 안에 수많은 얼굴이 보인다. 어린아이의 얼굴, 소년의 얼굴, 젊은이의 얼굴, 그리 젊지만은 않은 얼굴. 그 얼굴들 모두가 슈퍼임포즈(superimpose: 겹쳐놓다)로 화석처럼 보존되어 있다.' 영국 작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의 『싱글맨』(*A Single man*, 1964)의 일부다. 아침에 눈을 뜬 조지는 거울 앞에서 '변장'하는 자신을 타인처럼 관찰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수하고, 면도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조지답게' 변장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날들에 이런 경험을 한다. 원치 않지만 나를 나에 가장 가깝게 꾸미는 것. '나답다'의 기준은 대체로 사회·문화적으로 정해진다. 사회·문화적으로 기준이 되는 용모와 태도, 행동은 체화된다. 몸에 밴 말투, 걸음걸이, 표정, 태도가 고유한 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진다. 따라서 나는 개별적인 '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나'이기도 하다. 그 고유한 모습은 개인의 경험, 속해있는 사회적 규범, 시대적 감각에서 비롯된다. '나답다' 또는 '나답지 않다'의 기준은 나를 더욱 견고하게 고정한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나이가 숙명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영어에서 나이를 묻고 답하는 형식에는 be 동사가 쓰인다. "How old are you?"(몇 살입니까?)에 대한 답은 "I am twenty-one years old."(스물한 살입니다)처럼, be 동사로 묻고 답한다. 'am'(~이다)이 사용된 것은 나이가 그 사람의 정체성(나 = 21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나이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스물한 살이 되면 성년일까?"와 "서른 살이 되면 인생이 정해질까?"의 질문은 의도부터 다르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스물한 살은 성년임이 분명하다. 반론의 여지가 없다. 반면, 서른 살이 되면 인생이 확정될지는 알기 어렵다. 인생 자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투표권을 가진 성년이라 해도 어른스러운 판단을 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나잇값 못 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규범화된 행동, 태도, 언어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구에 부응하려고 할 뿐이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나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나이는 시간이 만든 추상적 개념이다. 시간 자체는 인간에게 구체적인 물성으로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시간에 잡겨 있으며, 이따금 몇몇 순간을 향유하거나 훌쩍 흘러가는 시간을 놓쳐버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1]

그만큼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 지금을 즐겨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삶은 쉬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순간을 느끼고 즐기는 방법도 어렵지만, 막상 즐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듯이 만족하는 법이 없다. 무엇을 성취하는 순간,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아무 일'의 기준은 모호한데도 그렇게 느낀다.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아무 탈 없이 무사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크다. 한창 일할 때는 순간이라고 할 것 없이 일에 쫓기고,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나이가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하다. 십 대, 이십 대, 삼십 대, 사십 대, 오십 대, 육십 대가 하나의 몸에서 흐르지만 미래를 향해 달려왔을 뿐 과거의 시간은 멀어지고 현재의 나이로만 나는 고착되어 있다. 엄마는 언제나 엄마였으며, 할머니는 언제나 할머니로만 딸에게, 손녀에게 인식된다. 젊은 사람들은 늙었던 적이 없으며, 늙은 사람들은 젊었던 시절을 추억하지만 세대가 다른 손녀가 듣기에는 구닥다리 이상한 역사일 뿐이다. 나이 든 지금에 와서 젊은 시절의 나를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 화석처럼 보존하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나이는 특히 부정되고, 노화는 피해야 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대부터 주름을 관리하세요'의 광고 카피는 노화에 대한 경고성 멘트이다. 우리의 탄생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 인생은 엄마의 자궁에서 시작되는 내리막길[2]이라는 농담 같은 진담이 더 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세계 안티에이징(anti-aging·노화 방지) 시장이 약 70조 원(2020년 기준)이며,

1 마르크 오제, 『나이 없는 시간』(Une ethnologie de soi. Le temps sans âge, 2014), 정현목 옮김, 플레이타임, 2019. p.12.
2 짐 크레이스, 『그리고 죽음』(Being Dead, 1999), 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2002. p.48.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화장품과 의약품을 합친 용어) 시장이 약 73조에 달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3] 이상적인 몸으로 젊음을 욕망하는 것에서 출발한 미용의학과 과학기술은 무한대로 성장하고 있다. 보다 젊은 몸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욕망이다. 수명은 길어지고 노년기를 오래도록 무기력한 채 그저 무위의 상태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나는 세계를 반영하면서도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한 몸에 경험했던 모든 나이가 그 사람의 몸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맥도날드에서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든 팔십 대 할머님 십여 분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콘에 얹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기 보다는 '혀로 핥는' 편에 더 가까웠는데, 마치 떠들고 까부는 십 대 소녀들 같았다.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한 미소가 할머님들의 얼굴 가득 번졌다. 동창들이 분명했다.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였던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할머님들은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바라보는 나에게조차 그분들의 백발 머리카락과 얼굴 가득한 주름은 점차 후경(後景)으로 멀어졌고, 소녀들의 모습만 시야를 채웠다. 빛나는 순간이었다.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지만 이렇듯 신비로운 면이 있다. 몸에서 반응하는 기억도 있다. 몸은 어떤 익숙한 냄새나 노래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 노인들을 의탁하는 요양시설에서 94세의 헨리는 항시 눈을 감고 얼굴을 숙인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 댄 코헨이 이 시설에 왔다. 그는 나이를 체크하여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아 노인들에게 들려주었다. 특정 기억을 되살리는 식으로 내면을 깨우는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한 것이다. 댄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던 중에 헨리가 갑자기 눈을 떴다. 자신이 젊은 시절 음악을 사랑했고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기억해 낸 것이다.[4] 헨리는 가장 좋아했던 밴드의 스캣(scat)을 중얼거렸고, 어깨를 들썩이며 정확한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음악은 댄을 헨리와 이어주었으며, 헨리라는 사람의 본모습에 접속하게 해주었다. "음악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라고 댄이 묻자 "음악은 나에게 사랑의 느낌, 로맨스를 준다"고 헨리가 답했다. 이렇듯 오랜 과거지만 특히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들뜨게 하고, 몸짓하게 만든다.

나이는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나이 듦은 경험이 쌓이면서 기다리는 법과 적응해 가는 법을 배우고 더 확실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취향이 자리 잡혀간다.[5] 분명 나이의 긍정적인 면인데, 젊은 날의 욕망은 성숙의 시간을 갖게 되며, 과한 열기는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사물도 마찬가지다. 오래되어야 훨씬 좋은 것들이 있다. 프랑스의 아르마냑(Armagnac)같은 술이 그렇고, 한국의 씨간장이 그러하다. 모두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다. 사물에 빗대어 보자면, 젊음은 설익은 풋내가 난다. 이런 이유에서 열에 들뜬 젊음이 항상 부러움의 대상만은 아니다. 철이 없었고, 부끄러운 행동이 많았다고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의 주름지고 느긋해진 나이 든 상태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서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이힐에서 내려오면 여자로서는 끝이라거나 생리가 끝나면 더는 여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버젓하게 뷰티 잡지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세상이지만 그 족쇄에서 풀려나자 자유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이는 '지금 여기' 나에게 체화되어 실재한다. 몸을 통해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연결해 준다. 나는 소녀였으며, 한 여자였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이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나는 나의 역사에서 주연 배우다.

3 ‹2020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12.
4 마이클 로사토-베넷,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 *Alive Inside: A Story of Music and Memory* (American Documentary), Sundance, 2014.
5 조르주 페렉, 『사물들』(Les Choses, 1965), 김명숙 옮김, 펭귄클래식코리아, 2004. p.29.

시놉시스

미국 어느 소도시의 해링턴 댄스학원.
주주, 아미나, 코니, 마에브, 애슐리, 소피아, 루크,
일곱 명의 새끼 괴물 댄서들이 무용 선생 패트와 함께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춤추고 있다.

맨날 2등만 하던 주주는 처음으로 주인공 '간디의 영혼'
역할을 따내고, 늘 1등만 하던 아미나와 주주 사이에
고요한 폭풍이 휘몰아친다.

인물 소개

패트 헤링턴 댄스 아카데미 대표
아미나 스타 무용수
주주 맨날 2등
코니 자기가 간디 역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능 있는 무용수
루크 팀에서 유일한 남자(로 보이는) 무용수
마에브 팀에서 제일 재능 없고 나이 많은 무용수
소피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
애슐리 세계종말 이후의 미국 대통령
바네사 어쩌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음
엄마(들) 어른이 되지 못한 웬디

*주주 엄마, 루크 엄마, 소피아 엄마, 마에브 엄마는 배우들이 다역을 연기합니다.

나를 감각하는 곳, 춤의 국가

장지영 드라마터그

‹댄스 네이션›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모두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생각합니다. ‹댄스 네이션›의 모든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십 대 초반에 놓여있는 이 인물들은, 자신의 삶이 무엇이 될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발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댄스 네이션›은 이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댄스 네이션›은 작품의 인물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돋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인물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 될지, 무엇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무대 위의 현존하는 배우의 – 십 대가 아닌 몸을 가진 – 몸과 겹쳐질 때, '미래의 모습들인 유령들'과 겹쳐질 수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그래서 인물들이 함께 있을 때 각자를 무엇으로 대하고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이 작품은 비로소 춤의 '국가'가 됩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1. 퀴어성

이 작품은 명시적으로 인물들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퀴어 연극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댄스 네이션›은 규범적 정상성을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퀴어성을 인물 안에 담지하고 있기를 추구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다양한 몸들이 등장합니다. 십 대 여성의 몸을 연기하는 성인 여성, 장애인 배우의 몸이 모두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그들이 십 대 여성의 욕망을 연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균열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춤을 추는 십 대 여성'(그리고 남성 하나)의 몸에 기대되는 정상성을 비트는 것으로서의 퀴어성, 십 대 여성에게 기대되는 섹슈얼리티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퀴어성을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2. 10대성

그럼에도 여전히 작품의 등장인물은 십 대 여성입니다. 성적인 욕망, 춤을 추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는 십 대.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십 대라는 존재, 십 대 여성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깊게 탐색했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관계 맺기 방식은 간접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우리 안에 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체의 변화와 성적 욕망의 발달이 요동치는 시기인 십 대를 이해하여, 그들의 심리 상태를 몸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태, 강렬하게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이름 붙일 줄 모르는 상태를 배우들의 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십 대를 훌쩍 지난 배우들이 십 대를 '재현'하지 않으면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재현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배우의 몸이 다양한 신체로 십 대로서 존재할 때 발생하는, 역설적으로 가장 생생한 십 대의 모습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댄스 네이션›을 만들면서, 관객과 인물의 거리가 가장 밀접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십 대 여성의 선연한 욕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잊어버린 십 대의 기억을 이미 십 대가 아닌 채로 깨닫기를 바라는 연극이 아닙니다. 대신 인물을 마치 나인 것처럼, 여기 그들의 인생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나 스스로가 궁금하듯 그들을 궁금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안에 퇴적층처럼 남아 있는 십 대의 흔적을 생생하게 감각하고, 삶을 살아 숨 쉬는 것으로서 체감하기를 바랍니다. 인물과 나를 분리하는 대신, 인물과 기꺼이 하나가 되어 나의 인생을 열심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만들어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춤의 국가로 초대합니다. 공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댄스 네이션›의 인물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생각하여, 이 인물들의 열심에 답해주기를 바랍니다.

홍윤희

마에브/루크 엄마 /소피아 엄마 역

연극

‹얇은 경계›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장마› ‹환희 물집 화상› ‹메리제인› ‹가옥의 원› ‹단지 세상의 끝› ‹빌미›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외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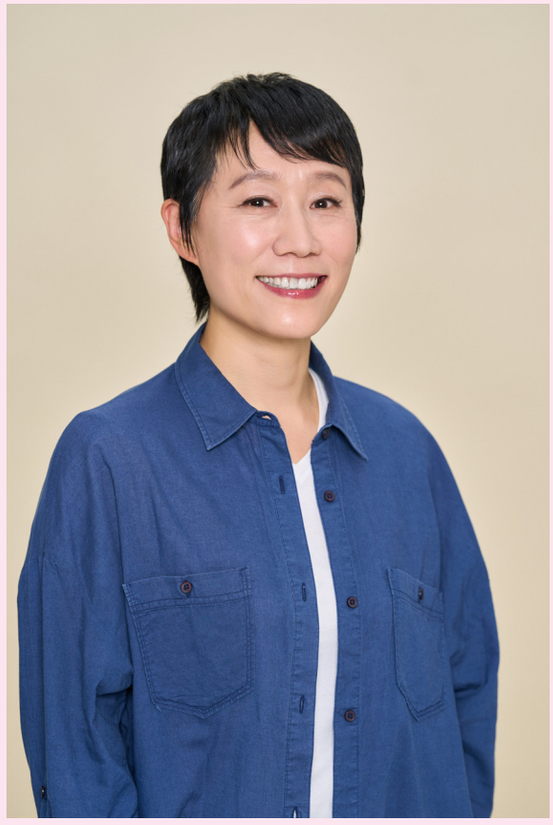
‹빌리 엘리어트› ‹두 도시 이야기› ‹디셈버›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불확실의 시대였다.
나는 뭐든 잘할 수 있고 잘났다고 생각한 반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 있게 잘하고 있는지 불안했달까?
어쨌든 뒤를 안 보고 앞으로만 가는 시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때인데, 70년대엔 누구도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잘 알려주지 않았던 시절이니
부끄러워했고 감추려 했던 듯하다.

이미라

코니/마에브 엄마 역



연극

‹나는 거위› ‹다섯 소년들› ‹하녀들›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사탄동맹› ‹마이 스윗 하우스› ‹마더퍼커 오이디푸스› ‹어딘가, 반짝› 외

영화

‹시바, 인생을 던져›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엄마가 슬프고, 아픈 게 무섭고 싫었다. 무엇인지 모르게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불리하다는 생각에 오빠 옷을 입고
남자가 되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바이오 용사로 공부보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바빴고,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에는
김광석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느라 목이 아팠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무릎과 발가락이 성할 날이 없었던
나의 10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놀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했다.

윤현길

아미나 역

연극

‹잔인하게, 부드럽게› ‹금조이야기› ‹조각난 뼈를 가진 여자와 어느 물리치료사› ‹추락II› ‹밤에 먹는 무화과› ‹어린잎은 나란히› ‹질주› ‹산악기상관측› ‹여름이 지나갈 때› ‹명왕성에서› ‹애들러와 깁›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저녁식사를 준비할 시간 조용히 붉은 철대문을 나와
큰절을 올렸다.
'부디 건강하게 모두 행복하소서. 소녀는 떠납니다..'
집 앞 사거리에 걸어 나와 잠시 머뭇머뭇
'아.. 어디로 가지? (꼬르륵)
늦게 들어가면 혼날 텐데... 뛰어!'
5분 만에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이 끝나버렸다.

마두영

패트 역

연극

‹로켓캔디› ‹대학과 연극› ‹콜타임›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폰팔이› ‹추락II› ‹마더퍼커 오이디푸스› ‹너를 만난다› ‹웃기는 어둠› 외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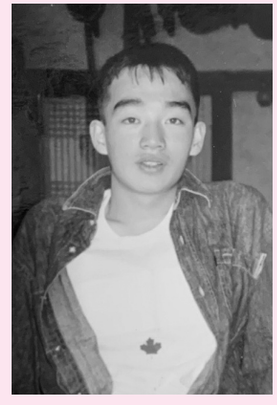
‹내과 박원장› ‹낫 플레이드› 외

영화

‹전선을 따라서› ‹세상의 아침›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10대의 마두영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매일 농구를 했고, 잘 때도 농구공을 안고 잤다.
‹슬램덩크›와 ‹마지막 승부›는 마두영의 성경이었고
수십 번을 반복해서 봤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우유를 마시고 수천 번의 점프를
해도 키는 자라지 않았고, 결국 만화와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라는 다짐과
나의 "영광의 순간은 지금이다"라는 마음으로
"왼손은 거들었던" 그때의 기억은 "몇 번이라도 날
되살아나게 한다".



황미영
소피아 역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해맑고 언니, 동생,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시절.
딱 소피아 나이인 초등학교 5, 6학년 때 유도를 했었어요.
그땐 여자부가 없어서 남자들과 훈련하고 시합했는데...
제 기억에 저는 모든 훈련과 운동을 미친 듯이 열심히 했지만
경쟁이나 승부욕에 있어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땀 흘리고 힘쓰는 것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
져서 코치들한테 뺨을 맞는 남학생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백우람
루크 역

연극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_선택›
‹벙커› ‹제4의 벽› ‹침묵의 오육초:
나를 쏟아내다› ‹반달› ‹인정투쟁;
예술가 편› ‹푸른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전쟁터 산책› ‹들판에서›
‹무무› 외

수상

2019 제14회 나눔연극제 남자연기상
‹한달이›
2013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남자연기상 ‹고도를 기다리며›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10대의 우람에게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태어난 걸 후회하고 죽고 싶겠지만

살아. 살아라. 살아있어. 살아야 해. 살아주라.

... 살아줘서 고마워.

40대의 우람이가

강보람

바네사/주주 엄마 역

연극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_선택›
‹알록달록 한 땀 한 땀›‹제4의 벽›
‹어느 마을›‹경로 이탈›‹놓다›
‹인정투쟁; 예술가 편›‹푸른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방에서
나오기만 해›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가두고, 억눌렀었다.
내 말을, 몸을, 감정을.
장애가 있는 스스로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비장애인 틀에 아등바등 끼워 맞추면서
숨 막히게 살아냈어야만 했던
10대의 내 말에게, 몸에게, 감정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들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부진서

애슐리 역

연극

‹웰킨›‹커튼›‹퍽킹 젠더›‹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외

영화

‹첫잔처럼›‹삼선의원›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와일드한 여드름 대장 1학년 3반 응원단장 부부젤라!
교복 치마 안에 체육복은 기본 착장,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미진분식 김말이 먹으러 갈 사람!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돌격!!!!

장호인
주주 역

연극
‹콜타임› ‹유디트의 팔뚝› 외

나의 10대에 대한 기억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러웠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욕심 없는 것처럼, 인생 해탈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내가 짱이 되고 싶었다.
밖에선 끊임없이 떠들고, 집에선 잠만 자던 시절.

창작 노트
정혜정 조연출

지금 우리가 10대의 몸을 감각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Gut Feeling”은 일본 해부학자인 미키 시게오(三木成夫)의 저서 『내 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언어다. 저자는 “마음은 인체에 내장된 우주의 리듬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내장 기관과 연관이 있고, 내장 기관의 감수성이 곧 ‘마음’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발육 과정을 통해 상세히 짚어가고 있다.

“Gut Feeling”은 이소영 안무가가 제안해 주고, 이오진 연출이 키워드로 삼는 단어다.
‘GUT’은 한국에서 ‘직감’, ‘육감’으로 번역되는데, 동시에 ‘소화기관’, ‘장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댄스 네이션› 인물들의 반응이 머리(뇌, 이성)로 느껴지는 것보다 신체적인 감각이 밖으로 발화되는 것에 가깝다고 느끼며 작업했다.

[움직임 워크샵]
2023.4.20 – 4.24
약 5일간 이소영 안무가가 제시해준 움직임들을 감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몸 상태 알아보기
잠을 푹 자지 못해서 목과 어깨가 불편한 사람, 갈비뼈가 뻐근한 사람, 피곤하지만 컨디션은 괜찮은 사람 등등. 내 몸 상태를 감각해보고 알아가는 움직임을 진행한다. 우리는 항상 몸을 사용하면서도,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감각하고 느껴보는 경험은 낯설게 느껴졌다. 각자의 몸 상태를 공유하는 것을 매일의 루틴으로 가져가기로!

움직일 때의 약속

1.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기
2. 자리가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자리 옮기기
3. 잘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4.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편하게 누워서 움직이기

이와 이 사이에 혀를 대고 '스' 소리 내기
누워서 굴러보기 (손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시선을 확장해서 걷기)

일어나서 걸어보기

걷는 것을 의식하기보다, 보는 것(내 주변, 뒤통수가
무엇과 멀어지는지)을 의식해 보기
속도, 무게가 어떤가? 그럴 때의 느낌은?

내장 감각 느껴보기

– 배꼽으로, 배꼽 안쪽으로(혹은 안에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소리, 에너지 감각하기
– 미간부터 배꼽까지 하나의 긴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의 느낌, 온도, 질감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고요한 호흡.
– 나의 폐 상태를 들여다보고 느껴보기 (폐의 부피감은
  어떠한가?)

우리가 10대를 연기한다는 것은 그때의 신체 감각을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 이소영(안무가)

춤

'춤'은 어떤 걸까? '춤춘다'하면 떠오르는 인상은?
– 리듬감, 멋지다, 칼각, 숨, 조명, 열기, 모든 것

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 반복, 리듬, 동작, 몸, 연결, 선, 속도, 반응, 온도, 집중.
  심장 소리가 들리는, 기억과 본능을 깨워내는 아이가
  된 것 같다.

‹댄스 네이션›에서의 춤은?
– 내가 나로 느껴지는, 존재하는 순간.
  우리만의 리듬, 조화 찾아보기!

[테이블 작업]

2023.2.28 – 3.14

14장의 연극이기 때문에 대본 리딩만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우리는 열심히 읽고, 질문 던지고, 추측해 보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유선 번역가가 연습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도 있었고, 장지영 드라마터그와
10대를 이해하는 혹은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빵 굽는 시간도 있었다.
여기서 "빵 구워올게요"란? 인물이나 대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 빵 굽는 시간만큼 기다려주면 대답을
준비해오겠다는 의미로 연습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

2023.3.14 – **공연 전**

움직이고 만들고, 부수고, 흩어지고의 반복. 때로는 물음표로
머물러 있는 채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된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감히 10대를 다시 감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프고, 불안하고, 구질구질하고, 슬프고, 화나고, 웃고,
기뻤던 그런 시간들을 말이다. 나름대로 잰다고 따지는데,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던 그 순간들.
하지만 우리도 분명 그때를 지나왔었다.

안/내꺼

음악 노트

단편선

요약하자면, 많이 만들었고, 길을 잃었고, 다시 길을 찾았고,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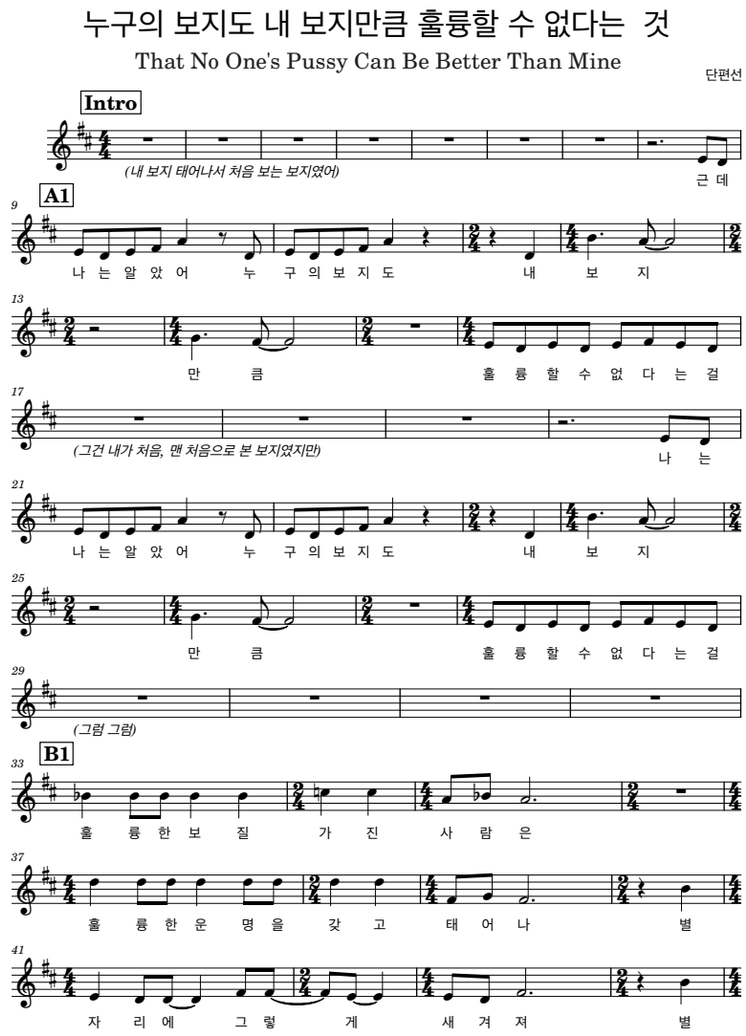
고백하자면 연극에 쓰이는 음악을 만든 경험은 거의 처음이다. '거의'라는 말을 쓴 것은 아주 오래전, 일종의 시민 극단이 올리는 뮤지컬 음악을 작업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수준이 달랐다. 간혹 영상물에 필요한 음악을 쓰기도 했으나 장르가 달랐다. 일면식도 없던 이오진 연출에게 대뜸 연락을 받고 선 아주 잠시, 그러나 깊이 고민했다. "해낼 수 있을까." 대본을 읽었다. 지랄 맞았다. 연극 음악을 경험해본 적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어떨 거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재미는 있을 걸." 지랄 맞고, 힘들고, 재미있는 것. 그건 내가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다. 오진 연출에게 연락했다. "갑시다."

이오진 연출과 이소영 안무가를 만났던 첫 미팅이 기억에 남는다. 이것저것 잔뜩 준비해 가서 잔뜩 늘어놓았다. 한 30분 정도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연출이 한마디 했다. "일단 배우들 연기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함께 만들어 가시죠." 주로 대중음악씬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내게 '천천히 함께'라는 건 낯선 방식이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다음이었다. 동시에 연출이 그때 무언가를 결정해 줄 수 없던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도 아직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뉘앙스는 보다 시니컬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배우들과 만나고 극을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는 이 극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소극(farce)에 가깝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아주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관객들이 이 극을 하나의 소동처럼 여겨주었으면 했다. 디오니소스적인, 넘실대는 야성과 풍요로움이 공존하는 극.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미지들이다.

지면을 빌려 함께 작업한 배미령 음향 디자이너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음악계에서도, 연극계에서도 나보다 훨씬 선배인 그는 '거의' 첫 작업에 임하며 잔뜩 긴장해 있던 나를 특유의 수더분함과 편견 없음으로 환대해 주었다.

"연극 작업을 하면 보통은 혼자만 음악 하는 사람이라서 외로웠는데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잘됐다"던 그와 극의 '소리'에 대해 빈번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는 서로의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곡들에 미령 디자이너가 먼저 낸 크리에이티브들이 녹아 들어있으며, 때문에 음악 파트 역시 사실상 공동 작업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반겨준 모든 사람들,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에게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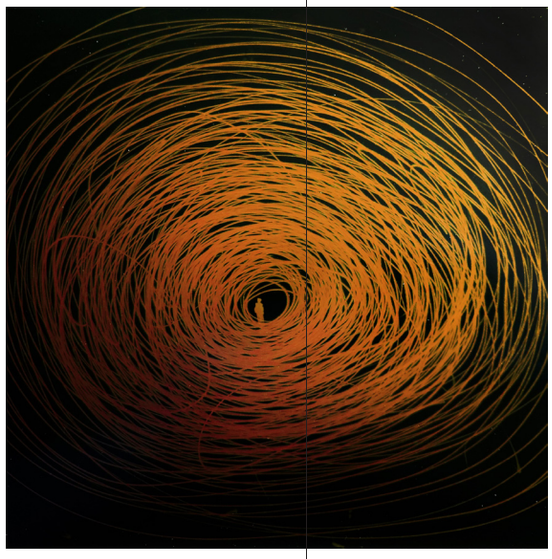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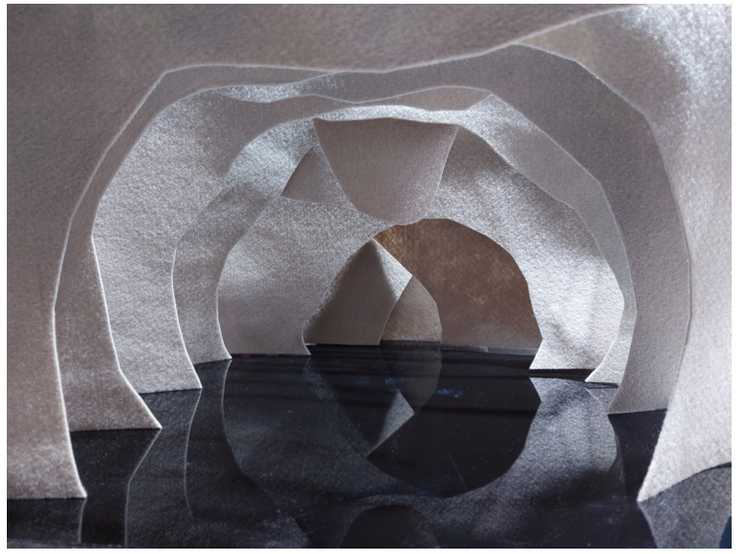
무대디자인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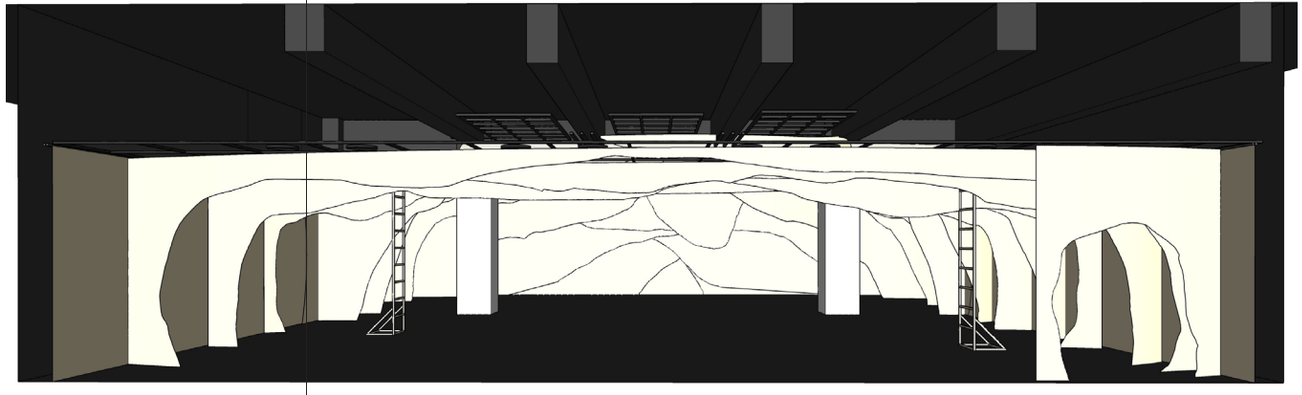
장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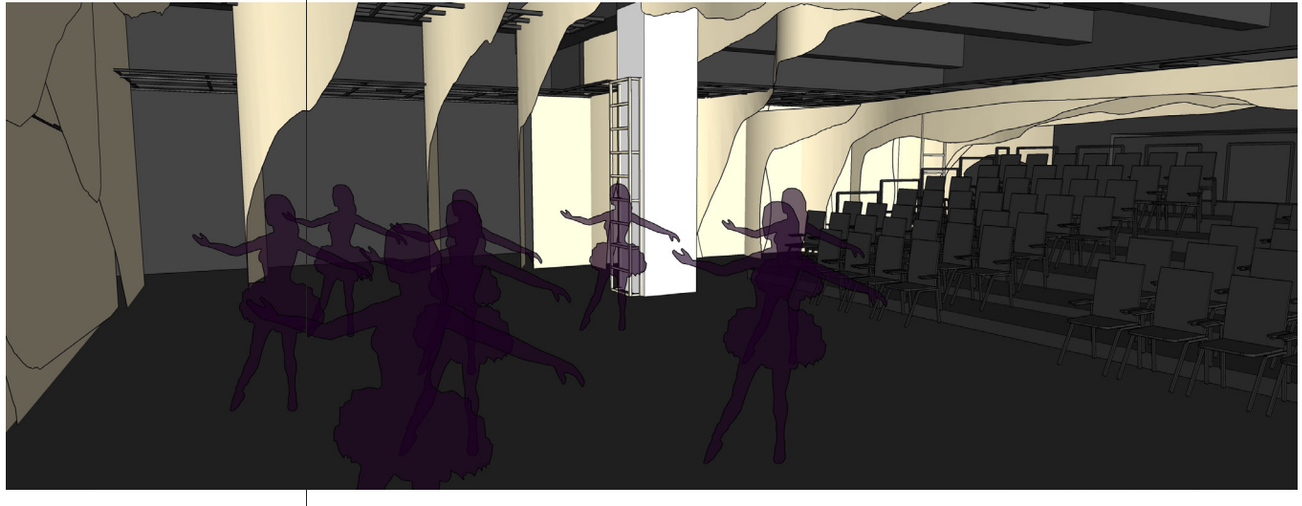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뜨겁게 꿈틀거리며 소화되지 않는 것이 분명 내 몸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항해야만 했던, 어설프고 불안하게 몸부림을 쳤던 사춘기의 몸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의 감각은 분명 ‹댄스 네이션›에 등장하는 다양한 몸속 어딘가에도 새겨 있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해도 괜찮다고,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몸들이 춤을 추며 자유롭게 진동하고,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가르며 바람을 일으킬 때 무대는 몸체가 되어 몸의 시간, 감각의 시간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상디자인 노트

EK 이은경

이번 작업 과정은 '나와 나의 몸을 마주하기'였습니다.
저는 출산한 뒤로 달라진 몸을 만난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댄스 네이션› 속 14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레오타드라는 익숙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연습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들의 의상 컨셉은 댄스학원의 모습을 참고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톤의 흐름은 화이트톤으로
시작해 점층적으로 색감이 더해져 과감하고 생동감 있는
원색의 의상들로 마무리했습니다.

댄스 네이션
Dance Nation

5.2-5.2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 클레어 배런 Clare Barron
번역 함유선
윤색·연출 이오진
드라마터그 장지영
출연 홍윤희 이미라 윤현길 마두영 황미영
백우람 강보람 부진서 장호인
조연출 정혜정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영주

무대디자인·무대제작·무대모형제작·
소품디자인·소품제작 장호
제작팀장 김호준
무대크루 김예찬 설재서

조명디자인 신동선
조명팀장 홍유진
조명크루 곽태준 김슬기 김은빈 윤혜린 이상혁
정우원 정주연 정찬영 정하영
조명오퍼레이터 이다빈
조명장비임차 닉스컴퍼니 (대표 허은영)

음악 단편선
음향디자인 배미령
음향오퍼레이터 정혜정

의상디자인·제작 EK EKCOSTUME (대표 이은경)

분장디자인 정지윤
분장팀 류시은 최윤희

영상디자인·제작 업플레이스 (대표 오득영)

안무 이소영

접근성매니저·자막디자인 이청
자막오퍼레이터 임민정
수어번역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수어연출 김홍남
수어통역 김동미 박미소 안강숙 이은미 조유나

라이선스 코디네이터 박혜영
무대크루 박서현 한혜진
영상크루 이효진

그래픽디자인 콘탁트(kontaakt)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
사진기록 서울사진관
영상기록 헤즈스튜디오
인쇄 으뜸프로세스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이정연
전시기획 최희승 장혜정 박소언 김하은
교육기획 박찬종 정다운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정소리 이지혜
티켓 이한별 최시윤
사무 박세연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무대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DANCE NATION
By Clare Barron

DANCE NATION received its UK premiere at the Almeida Theatre, London, September 2018. Playwrights Horizons, Inc., New York City, produced the World Premiere of DANCE NATION in 2018 with support from an award by the National Endowment of the Arts, and a generous gift from Scott M. Delman. Special thanks to The Harold and Mimi Steinberg Trust for supporting new plays at Playwrights Horizons, and special thanks to the Time Warner Foundation for its leadership support of New Works Lab at Playwrights Horizons.

DANCE NATION was developed at the Perry-Mansfield New Works Festival, June 2015, with the Atlantic Theatre Company, and presented as part of the Contemporary American Voices Festival at Long Wharf Theatre, September 2016.

DANCE NATION was written, in part, in residence at SPACE on Ryder Farm, and received extensive workshop time and space as part of New Dramatists' Jerry A. Tishman Playwrights Creativity Fund.

DANCE NATION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United Talent Agency.

두산아트센터 공모 안내 2023

공동기획

두산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작품을 지원합니다. 공동기획 작품은 Space111 무료 대관 및 소정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5월 8일(월) - 6월 7일(수)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작품당 1천만 원)
- 공연장(Space111), 부대장비
- 하우스 운영 인력(티켓 수표, 현장관객 응대)

* 선정단체 부담
- 제작/홍보마케팅/티켓/공연 운영
- 참여 배우/스태프 공연자 상해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공연기간
2024년 4월, 7~8월

대상
두산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Space111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 자격/장르 제한 없음
- 재공연 작품 가능
- 최소 10회차 이상 가능한 작품

작품수
2편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두산아트랩 공연

두산아트랩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술가들은 두산아트랩을 통해 발전 과정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이후 작품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모기간
6월 12일(월) - 7월 12일(수)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9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공연기간
2024년 1~3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장르 제한 없음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선정인원
8명 내외
* 개인만 신청 가능
* 1명당 최대 2편까지 지원 가능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센터 2023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광부화가들 연극 2022.12.1-1.22
작 리 홀 연출 이상우 김한내 김미란

회란기 연극 3.10-4.2
원작 이잠부 각색/연출 고선웅

장수상회-LAST DANCE 연극 4.21-5.21
작 이연우 전용석 연출 서정완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6.10-8.13
작 앨런 베넷 연출 김태형

엔딩노트 뮤지컬 9.21-11.12
작 주형모 작곡 이지혜 연출 윤한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뮤지컬 11.30-2024.2.18
작사/작곡 닐 바트람 극본 브라이언 힐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3 1.11-2.15

이은희 개인전 3.8-4.5

두산인문극장 기획전-눈은 멀고 4.19-5.20

김영나 개인전 6.7-7.8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7.26-8.30

정희민 개인전 9.13-10.21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5-12.16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3: 강연 4.3-7.10
두산아트스쿨: 미술 3.16-4.6, 10-11
두산아트스쿨: 공연 7.28-8.18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7-12

공모 일정

공연
DAC Artist 1.9 - 1.26
공동기획 5.8-6.7
두산아트랩 공연 6.12-7.12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2.6-2.17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4.3-4.14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3

롱피쓰 연극 2.2-2.4
작 김도영 연출 손청강 출연 이은지 최경훈

당신은 초록색 펜일까 그걸 쥔 손일까 연극 2.9-2.11
작 이소연 연출 서의석

아파야 낫는다 건강백세! 다원 2.16-2.18
구성/사진 이성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연극 2.23-2.25
구성/연출 손은지

페이스 타임 연극 3.2-3.4
작 공동구성 연출 박세련

아란의 욕조 연극 3.9-3.11
작 이세희 연출 손은재

국산예수 연극 3.16-3.18
작 공동창작 연출 전웅

언스코치드 연극 3.23-3.25
작 루크 오웬 연출 최호영

두산아트랩 극작가 2023 3.30-4.1
작 도은 임태은 김연재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댄스 네이션 연극 5.2-5.20
작 클레어 배런 연출 이오진

20세기 블루스 연극 5.30-6.17
작 수잔 밀러 연출 부새롬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연극 6.27-7.15
작/연출 정진새

공동기획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 판소리 4.8-4.22
각색/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연극 7.22-8.6
작 스테파노 마시니 연출 이은준

DAC Artist

잘못된 성장의 사례 연극 9.5-9.23
작/연출 강현주

러브 앤 인포메이션 연극 10.17-11.4
작 카릴 처칠 연출 진해정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설유진 신작 연극 11.21-12.9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